

## Calvin의 인간론: 일그러진 의지와 탁월한 이성

하재성\*

### 국문초록

종교개혁자 Calvin에게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속이 없이는 완전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왜곡되었다. 한편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오염되었으나,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탁월한 이성이 역사와 문명을 풍요롭게 한다. Calvin은 그런 세속적인 산물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타락 이후 불신자들에게도 남아있을 만큼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Calvin의 인간관은 영혼과 물질을 나누었던 헬라적 이원론과 구별된다.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일반적 학문의 가치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타적 구원의 교리 이외에, 세속적 문화와 학문에 대한 그의 이와 같은 관점과 학문적 방법론은 오늘 21세기 목회 신학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는 신학의 견고함을 확신하였고, 일반 학문들의 탁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열려 있었다.

**중심단어** : 존 칼빈, 하나님의 형상, 의지, 이성, 일반은총

### I. 여는 글

우리는 흔히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선언하는 John Calvin의 인간관을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라 생각하기 쉽다. Calvin은 인간이 타락으로 전적 부패하여

---

• 논문 투고일: 2009년 3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14일  
\* 고려신학대학원

• 논문 수정일: 2009년 4월 27일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고, 인간의 범죄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켰다고 말한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그 오염이 너무나도 심하여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끔찍하게 기형적이 된 형상일 뿐이다.”<sup>1)</sup> 타락 이후의 인간은 이처럼 상상하기 힘든 뒤틀린 모습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일그러졌고, 인간의 이성은 오염되어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타락으로 오염된 인간은 과연 무용지물인가? 구원과 의에 이르는 인간의 능력 외에, 인류 역사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인간의 능력과 유산은 과연 적그리스도적인가? 기독교적 신앙 밖에 있는 인간의 업적은 신학적으로 무시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타락한 죄인에게 그들의 색은 회색 내지 검정색일 뿐인가?

이런 질문들에 비추어 Calvin의 인간관은 전혀 폐쇄적이거나 염세적이지 않다. 비록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으로 전소된 화재 현장으로부터 건진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다. 특히 인간의 이성은 타락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큰 유산의 하나이다. Calvin은 이성의 탁월함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일반적 은총 가운데서 찾는다.

Calvin은 인간 이성의 산물인 학문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간들의 활동들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며, 탁월한 인간 이성의 저자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Calvin은 지금의 세상에서 인간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타락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Calvin의 영혼은 정죄하는 자들과 같이 완고하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시대의 인문주의를 숨쉬고 있었다.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2. 1,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81에서 재인용.

## II. 찢는 글

### 1. 인간의 타락과 전적 오염

Calvin의 가르침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이 부여받은 모든 선한 능력과 가능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소멸되었고, “이제 오직 일그러지고 뭉그러져 버리고 병들어 버린 것만이 남게 되었다.”<sup>2)</sup> 죄를 범하기 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그 선한 능력들은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그 소멸의 정도는 절망적이다. 도저히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다시 재활용하여 쓰기 힘들만큼 원래의 모습이 소실되었다. 혹시 그 형상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너무나도 손상되고 기형적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sup>3)</sup> 거기 에다 인간의 자발적인 죄악이 부가됨으로써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모든 부분들이 죄로 전염되었다.

죄로 오염되고 부서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맹목과 무지만 남아있게 되었다.”<sup>4)</sup> 불의가 자리를 잡은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구원은 커녕 선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살아 있다가 보다 오히려 죽은 상태의 인간이 가진 능력과 일치한다.

Calvin에게 있어서 죄란 인간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 주체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소외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간 생명 위에는 죽음이 지배한다. 하나님 형상의 왜곡과 하나님

---

2) Hoekema, *God's Image*, 81

3) John Calvin, *Commentary on Genesis* 1:26 (King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48]), Hoekema, *God's Image*, 81에서 재인용

4) John Calvin, Sermon on Job 14:13-14 in Torrance, *Calvin's Doctrine*, 76, Hoekema, *God's Image*, 82에서 재인용.

으로부터의 단절은 또한 인간 관계의 소외와 인간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동시에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sup>5)</sup>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신의 선물들과 능력들, 예를 들어 이성과 의지 같은 것들이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역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sup>6)</sup>

Augustine과 마찬가지로 Calvin은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부패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기능들이 너무나도 망가졌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는 끊임없는 무질서와 걱정이 위협스럽게 도사리고 있다.”<sup>7)</sup> 물론 피조물인 인간의 타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Calvin은 이것을 부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전적인 책임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sup>8)</sup>

#### 1) 일그러진 의지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다. 아담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자유로운 선택을 소유하고 있었다.”<sup>9)</sup> 자신이 원하여 선택하였다면 아담은 최초의 오염되지 않은 상황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그의 의지는 그 처음 상황을 지속하고자 하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쉽게 타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0)</sup>

Calvin은 Augustine을 인용하면서, “자유의지는 그 [개념]을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강화되기 보다는 깎아지른 듯하다”고 단언한다.<sup>11)</sup> 인간 의지의 자유를

5) Torrance, *Calvin's Doctrine*, 46, Hoekema, *God's Image*, 82에서 재인용.

6) Calvin, *Institutes*, III. 3. 12, Hoekema, *God's Image*, 82에서 재인용.

7) Calvin, *Institutes*, III. 3. 12, Hoekema, *God's Image*, 82에서 재인용.

8) Francois Wendel, Calvin, 김재성 역, 『Calvin: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220.

9) Wendel, Calvin, 221.

10) Wendel, Calvin, 221.

11) Calvin, *Institutes*, II. 2. 1

주장하며 그 자율성을 주장할수록 자유의지의 개념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견잡을 수 없는 절망을 모순적으로 확인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unfree)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한 욕구에 의해 종노릇하기 때문이다. 그 의지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자유롭게 회복될 수 있을 뿐이다.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신의 의를 위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는 비참으로 속박 되었다. 인간의 의지가 죄와 비참의 종으로 종속되면서, 결국 인간 존재 자체도 같은 비참한 상태의 종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상실되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선택함으로써 그가 애초에 창조된 상태에서 떠났고, 그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의 위대한 권세(powers)”를 잃어버렸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불능화된 인간 의지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음”을 주장한다.<sup>12)</sup>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 은사는 파괴되었고, 초자연적인 것도 함께 소멸되었다.”<sup>13)</sup>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함께 죄로 오염되었지만, “특히 의지는 더 이상 악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가 없게 되었다.”<sup>14)</sup> 물론 타락하였다고 의지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sup>15)</sup>

Calvin은 성 버나드(St. Bernard)의 선언을 자신의 주장으로 인정한다. 즉 “나쁜 의지는 파괴된 본성에 속한 것이고, 선하게 의도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 것이다.”<sup>16)</sup>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오직 악을 원하고 선택하며, 그 의의

12) 고린도후서 3:17, Calvin, *Institutes*, II. 1. 1.

13) Calvin, *Institutes*, II. 2. 12, Wendel, *Calvin*, 224에서 재인용.

14) Wendel, *Calvin*, 223.

15) Calvin, *Institutes*, II. 3. 5, Wendel, *Calvin*, 225에서 재인용.

16) Calvin, *Institutes*, II. 3. 5, Wendel, *Calvin*, 225에서 재인용.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뒤틀리고 악한 의지의 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sup>17)</sup>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외부적인 강제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필연적인 것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악하고 뒤틀어지고 간악하고 불결한 것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으며, 착수할 시도조차 못하게 되었다.”<sup>18)</sup>

따라서, Calvin에게는 자유 의지가 존재한다는 그 누구의 주장도 궤변을 일삼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우스운 이야기일 뿐이다. “그토록 하찮은 일에 그렇게 당당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우스꽝스러운 일”일 뿐이다.<sup>19)</sup> 일그러진 인간의 의지는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며, 그 누구의 강요가 없이도 “오로지 악으로만 움직여지고, 인도되고, 이끌려간다.”<sup>20)</sup>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타락한 인간 의지의 교정과 관련된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자들은 “우리의 일그러진 의지를 교정하고, 의를 향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선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sup>21)</sup> 그것은 환경이나 외부 압력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전에 죄에 복종하며 종노릇하던 의지는 회심을 통하여 “원죄의 지배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의지”로 전환된다.<sup>22)</sup> 곧 회심과 중생은 인간 의지의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물론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루 아침에 모든 의지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격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지 자체가 소멸되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의지가 새롭게 창

17) Wendel, *Calvin*, 225.

18) Wendel, *Calvin*, 225-26.

19) Calvin, *Institutes*, II. 2. 7, Wendel, *Calvin*, 226에서 재인용.

20) Calvin, *Institutes*, II. 3. 5. Wendel, *Calvin*, 227에서 재인용.

21) Wendel, *Calvin*, 227.

22) Wendel, *Calvin*, 227.

조된다는 것은 회심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의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변화한다는 뜻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sup>23)</sup>

## 2) 이성의 손상과 존엄성의 파괴

Calvin에 따르면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이해력과 인지의 기능을 가진 인간의 이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이해력과 능력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오히려 인간의 이성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잘못된 일을 단순히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악한 일을 방지하는 만큼이나 자주 그 일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된다.”<sup>24)</sup>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이성과 의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일정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Calvin에게 있어서 “초자연적 선물들은 파괴되었을 뿐이다.”<sup>25)</sup> Calvin에 따르면, 철학자들은 이성의 위치를 사람의 마음에 둔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이란 인간의 “오성(understanding)과 함께 주어지며, 탁월하게 스스로 유지하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장점을 과시하는 한, 선하고 축복된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주된 원리”라 할 수 있다.<sup>26)</sup>

비록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Calvin에게 인간의 이성과 오성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진리를 아는데 있어서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이 놓여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의 법의 규칙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 아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무능하기까지 하다.<sup>27)</sup> 특히 첫 두 조항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비록 그가 “가장 위대한 천재라 하더라도 두더지보다 더 눈

23) Institutes, II-3-6. Wendel, *Calvin*, 227에서 재인용.

24) Hoekema, *God's Image*, 326.

25) Calvin, *Institutes*, II. 2. 12.

26) Calvin, *Institutes*, II. 2. 2.

27) Calvin, *Institutes*, II. 2. 18.

이 먼” 이성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sup>28)</sup>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다음과 같은 진리, 즉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혹은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해하는 데 접근하거나, 위하여 노력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정확히 조준하지도 못한다.”<sup>29)</sup>

Calvin은 인간 최악의 동기를 “교만과 함께 결합한 불신앙”으로 보았다.<sup>30)</sup>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인한 예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영원히 겸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담이 자발적으로 파멸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였으므로 그 과실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귀속될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이유는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인간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흠으로 창조하셨다. “흠과 먼지에 불과한 상태에서 인간의 존엄성으로 우쭐한다는 것보다 더 모순된 행위는 없”다.<sup>31)</sup>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유로운 의지와 분별력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비추어 전혀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피조물로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한 존재들로서,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요청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이유는 단순한 공백이나 결핍이 문제가 아니다. Calvin이 그의 말년에 가까운 “1559년에 이르기까지 더 확고히 선언” 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모든 종류의 악이 가득 들어차서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있지 못” 한다는 것이다.<sup>32)</sup> Augustine과 마찬가지로 Calvin은 이것을 정욕과 같이 취급한다. “인간의 모든 부분은, 이성으로부터 의지까지, 영혼에서부터 육체까지, 모두 타락하여서, 전부 다 그러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sup>33)</sup>

이것은 결코 Calvin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28) Calvin, *Institutes*, II. 2. 18.

29) Calvin, *Institutes*, II. 2. 18.

30) Wendel, *Calvin*, 221.

31) Wendel, *Calvin*, 222.

32) Calvin, *Institutes*, II. 1. 9, Wendel, *Calvin*, 223에서 재인용.

33) Calvin, *Institutes*, II. 1. 8, Wendel, *Calvin*, 223에서 재인용.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스스로의 “영혼 속에서 가장 고통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을 반영하는 존엄성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깨어지고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을 뿐이다.<sup>34)</sup> Calvin에게 있어서 인간의 내면적 가치는 제한적이며, 파괴된 이성과 의지는 인간의 가치 자체를 파괴시켰다.

## 2. 타락에서 보존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타락으로 의지와 이성이 그 본질적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타락 이후일지라도 이성과 의지는 최소한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기에 충분할 정도로 존속되어 왔다.”<sup>35)</sup> 비록 초자연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거룩함에 대한 동경,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완전히 낮선 것들이 되었”지만, “자연적인 은사들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sup>36)</sup> Calvin은 결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한 왜곡되거나 완고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의 안목은 인간에게 남아 있는 자유와 예술을 볼 수 있는 심미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Calvin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중립적인 인간의 행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존재이며, 오염된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도 많다.”<sup>37)</sup> 특히 이성에 의한 인간의 다양한 창조적 활동은 인류 역사의 아름다운 미덕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의지에 비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sup>38)</sup>

Francois Wendel의 지적과 같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 묘사할 때 Calvin은

34) Wendel, *Calvin*, 222–223.

35) Wendel, *Calvin*, 223.

36) Wendel, *Calvin*, 223.

37) Wendel, *Calvin*, 228.

38) Wendel, *Calvin*, 228.

지극히 비판적이고 절망적이지만, 인간 이성의 탁월함과 성취에 관해 묘사할 때에는 매우 밝은 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며, 그는 인간 역사를 암흑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갑작스런 그의 관점의 변화가 경이로운 이유는 곧 “그때까지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인문주의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Calvin의 인문주의적 결과만은 아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간에게 탁월한 면모가 있음을 주장하는, 표면적으로 모순되게 보이는 이면에는, 애초에 그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sup>40)</sup>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sup>41)</sup>

이성의 놀라운 성취와, 인류 역사의 영웅적 인물들도, 결국은 그들을 일으킨 하나님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생명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고결하게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미덕을 부여하셨다.”<sup>42)</sup>

“인간의 지성이 어떤 연구에 드러질 때, 그것은 전혀 헛된 수고가 아니요, 유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sup>43)</sup>

물론 Augustine의 말대로 자만이 곧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면, Calvin은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영웅과 인간 이성의 자만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미덕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인간의 야심과 교만은 그들의 성취를 무가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그들이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

39) Wendel, *Calvin*, 229.

40) Calvin이 개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대 철학자들과, 특히 에라스무스와 그의 학파(인문주의)를 칭찬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한계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Wendel은 Calvin이 변함없이 인문주의적 방법론을 그의 지적 체계에 사용했다고 말한다. Iain D. Campbell, *The Doctrine of Sin* (Ross-shire, Great Britain: Mentor, 1999), 74.

41) Wendel, *Calvin*, 228.

42) Wendel, *Calvin*, 229.

43) Calvin, *Institutes*, II. 2. 13, Wendel, *Calvin*, 229에서 재인용.

님의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지푸라기만큼의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음이 드러날 것이다.”<sup>44)</sup>

이와 같이 Calvin에게 인류는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그가 역사와 사회를 돌아보며, 닫히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경이롭고 열린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모든 인류와 역사에서 탁월한 이성의 활동과 성취를 통해 그들에게 배울 점과 놀라운 점들이 있음을 Calvin은 보고 있었다. 물론 그 모든 성취와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드러나고 있음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 1) 일반은총과 탁월한 이성

Calvin은 분명히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서 빛이 비쳐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자연의 빛은 어둡고 암울한 인류의 역사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한 편 영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자연의 빛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해, 자연적인 일들에 관해, 존경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어떤 지식을 보유케 되며, 그 빛을 통해 덕과 외적 수양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다.”<sup>45)</sup>

물론 인간은 그 빛으로 구원을 얻을 지혜를 얻지 못하며, 무지하여 그나마 남은 그 빛조차 남용한다. 일반은총이 영적이고 초자연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를 망각한 어떤 또 다른 “중립지대”를 형성하지는 못한다.<sup>46)</sup> 따라서 Calvin에게 있어서 일반은총론의 전제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인정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원의 필요성이다.

동시에 일반 은총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철학자의 사고와 지식의 가치를 진지하게 인정하게 한다. Calvin은 일반은총의 영역에 인류가 이성적

44) Wendel, *Calvin*, 229.

45) The Canons of Dort, III-IV. Hoekema, *God's Image*, 329-330에서 재인용.

46) Hoekema, *God's Image*, 332.

재능 가운데 이루어놓은 위대한 문학과 “건축, 조각, 회화, 음악과 같은 예술의 분야”들을 망라하여 그 아름다운 업적들을 인정한다.<sup>47)</sup> 비록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업적은 놀라운 것이며, 그 가치는 본질적이다.

Calvin은 그것을 “세상적인 것들”이라 지칭한다. 이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미래의 생명의 불멸성과 참된 의로움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로지 현세의 삶에만 속해 있고, 삶의 한계에 한정된 것들이다.”<sup>48)</sup> 거기에는 정치와 정책, 기계, 철학, 교양 등 모든 실제적인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학도였던 Calvin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사회 속에서 법의 통치를 받고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즉 “모든 인간은 내면적으로 정치적 질서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세의 삶의 통치와 관련된 이성의 빛이 그 누구에게도 결핍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말이다.”<sup>49)</sup>

Calvin은 분명히 현세에 속한, 기독교의 진리와는 무관한 교양학의 영역들을 인정한다. 그것을 개발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인간에게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을 전제로 하며, 이런 이성과 이해력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것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으로부터 어떤 지성도 박탈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증거이다.”<sup>50)</sup>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지지를 받는 Calvin의 일반 은총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비기독교적 인간 지성의 산물을 포용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가 이교도의 저서들 속에서 감탄할 만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저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비록 인간의 본성이란 완전한

47) Hoekema, *God's Image*, 331.

48) Wendel, *Calvin*, 230.

49) Calvin, *Institutes*, II. 2. 13, Wendel, *Calvin*, 230에서 재인용.

50) Calvin, *Institutes*, II. 2. 13, Wendel, *Calvin*, 230에서 재인용.

상태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로 장식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어느 곳에서 나타나든 결코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은 곧 성령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옛 법률가들이 정당한 질서나 공정한 집행을 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신중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또 본성의 비밀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기록에 있어서 철학자들이 지나치게 무지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논쟁의 기술을 가르쳐 준 학자들의 지식이 부족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다른 학문들을 들 수 있겠는가?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이 모든 주제에 관해 저술된 책들을 읽으면서 경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것이다.<sup>51)</sup>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였던 철학자들의 통찰력조차 Calvin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죄에 의한 인간 의지와 이성의 전적 부패의 개념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Calvin의 호소를 들을 때, 과연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만큼 Calvin의 영혼은 일반은총에 관한 한 자유로웠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의 안목은 매우 수용적이었다. 물론 이 모든 성취에 대한 원인과 영광은 오로지 그 지혜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Calvin은 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성령에 의한 선물이라 강조한다. 그는 이 선물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Calvin이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던 인간의 원죄와 상반되게 보이는 인간 이성의 탁월성의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Wendel은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설명한다.

51) Calvin, *Institutes*, II. 2. 15, Wendel, *Calvin*, 230-231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Calvin은, 츠빙글리처럼 원죄의 결과를 극소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도의 보화에 대해서 주장한 취리히의 개혁자가 가졌던 이해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원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주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탁월한 이성적 활동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그는 인간의 타락 교리와 조화할 수 있었다. 타락에 대해서는 강한 주장을 하면서도, 인간의 업적을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에 귀속시켰다.<sup>52)</sup>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Calvin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기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이성의 열매들은 “하늘에서 부여된 선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세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Anthony A. Hoekema의 지적과 같이 인간 문명은 타락한 가운데서도 의미 있게 변화해 가고 있다. Calvin도 그 문명들이 가진 진리와 지식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성취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결코 부정적이거나 거부적인 것일 수 없다. Calvin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이의 감각(a sense of awe)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일 반은총의 성취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sup>53)</sup>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다. 그가 지으셨고, 그가 유지하시며, 어느 정도 죄가 억제되게 하사 문명이 가능케 하시며, 인간문화가 의미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이 땅을 인도하신다.<sup>54)</sup>

52) Wendel, *Calvin*, 231.

53) Hoekema, *God's Image*, 332.

54) Hoekema, *God's Image*, 333.

일반은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이원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추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며 무책임하게 방관해서는 안된다.<sup>55)</sup>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현세상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삶, 문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비록 세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적이지 않은 진지한 태도로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56)</sup>

인간 이성의 산물인 세속적인 학문에 대한 Calvin의 관점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문들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그는 철학을 신학의 시녀로 불렀던 스킨라적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가치로 삼고 있지만, Calvin은 플라톤적 이원론에서 자유로웠고, 세속적 학문들을 신학에 종속시키려는 마음에서는 자유로웠다. 그는 탁월한 여러 학문들에 대해 경탄하며 이를 즐겁게 사용하였고, 그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였다.<sup>57)</sup>

55) Calvin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가 요구한 “미래 삶에 대한 목상”은 “현재 삶에 대한 참여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삶은 오히려 “죄로 이끌어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Calvin, *Institutes*, III.9.3.). 175. Donald McKim, “Some Aspects of Death and Dying in Puritanism,” in *Calvini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Vol. X., ed. Robert V. Schnucker(Kirkville, MO.: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1988), 175.

56) Hoekema, *God's Image*, 333.

57) 이후 Calvin의 일반은총론은 개혁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 가운데 Abraham Kuyper는 “은총이 교회 밖 이교도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 문화와 과학, 예술, 학문의 발전을 가져왔고, 장차 “온전히 정결케 되어 영원히 천국에 보존”될 것이다. 카이퍼의 이원론적이고 낙관적인 일반은총론에 반하여 이후의 학자들은 헤르만 바빙크나 루이스 벌콕 등은 그리스도 중심적 일반은총과 그 남용(abuse) 가능성을 염려했다. 송인규, “일반은총: 개혁과 신학 내에서의 상이한 견해들(1)”,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정론」 제25권 1호 (2007): 132, 149-167.

## 2)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존중

인간의 타락은 인간 운명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타락 이전에 온전히 보유하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상태”였지만 타락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고,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Calvin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타락한 인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sup>58)</sup> 신학자 Calvin은 그나마 오염된 상태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말미암아 인간을 여전히 가치로운 존재로 여긴다. 특히 의지와 이성과 같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형상의 자취를 Calvin은 “흔적”(lineaments) 혹은 “잔여물”(remnant)이라 불렀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자취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자취가 인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sup>59)</sup>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에게서 인식하면서, Calvin은 인간이 다른 동료 인간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sup>60)</sup>

Calvin이 “자연적 은사들”이라 불렀던 잔여물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가진 지성과 감정, 의지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성; 인간 속에 심겨진 종교의 원리; 신성한 결속력에 의해 깨어지지 않는 잘 보존된 인간 상호간의 교제; 죄책이 인간 속에서 자극하여 생기게 되는 수치심; 법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배받게 되는 일; 이상과 같은 것들은 탁월하고도 천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지침계들이다.<sup>61)</sup>

이와 같은 흔적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인간을 대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어떤 핑계를 대며 인간을

58) Hoekema, *God's Image*, 78.

59) Calvin, *Institutes*, II. 2. 17, Hoekema, *God's Image*, 79에서 재인용.

60) Hoekema, *God's Image*, 80.

61) Hoekema, *God's Image*, 79.



하찮게 대해야 할 이유가 동료 인간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Calvin은 인간의 타락으로 의지가 타락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존재이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 섬기는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Calvin이 인간을 생각하는 표준은 이중적이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사람의 악한 의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보아야 한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위엄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도록 한다.”<sup>62)</sup>

Calvin의 언급은 자칫 타락한 인간이라고 다른 사람을 경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신학이 아닌 다른 학문, 혹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비록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는 하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자들로서의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Calvin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Calvin의 논의는 분명하다.

우리는 스스로의 공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보면서 마땅히 존경과 사랑을 표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를 돕지 않아도 될 하등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가 당신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추천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당신 자신을 그에게 주고,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그에게 바쳐야 할 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이다.<sup>63)</sup>

62) Calvin, *Institutes*, III. 7. 6, Hoekema, *God's Image*, 80에서 재인용.

63) Calvin, *Institutes*, III. 7. 6, Hoekema, *God's Image*, 80에서 재인용.

Calvin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마땅히...희생까지도 감수하게”하는 것이다.<sup>64)</sup> 왜냐하면 인간 속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과 위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빌미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Calvin의 중심을 왜곡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타인을 무시하며 하찮게 여기는 것과 더불어, 철학이나 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 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간의 존중과 치료를 위해 신학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일상적인 인간에 대한 탐구를 다른 영역의 학문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유익한 일이다.

탐구자나 탐구 대상이 그 누구든, 그들이 예수를 믿건 아니건 상관없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연구이며, 동시에 매우 가치 있는 연구이다. 인간에 대한 일반은총 영역에서의 연구와 탐구는 인간의 본성을 감찰하게 한다. 그런 탐구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이해하고 고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은총의 기능 가운데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sup>65)</sup> Hoekema에 따르면, Calvin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 비록 인간의 죄성을 제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삶에서 죄의 출현을 억제하며 비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진리를 발하도록 하시며, 많은 좋은 문화적 소산들을 산출케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sup>66)</sup>

### 3) 자기 중심주의와 자존감

Calvin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 자기 중심주의나 자기 사랑은 반드시 회피해야 할 것이며, 어정쩡한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세상에 관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경시해야만 하든지 혹은 이 세상

64) Hoekema, *God's Image*, 81.

65) Hoekema, *God's Image*, 332.

66) Hoekema, *God's Image*, 315.

이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한 자기 사랑에 묶어두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이지, 이들 두 극단 사이의 중간이란 없다.”<sup>67)</sup> 즉 Calvin에게 있어서 무절제한 자기 사랑은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속박이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sup>68)</sup>

특히 종말에 대한 묵상에 대하여 Calvin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기 부인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완성케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69)</sup> 미래에 다가올 종말과 그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세이다.

자기 존중이나 자기 사랑 보다는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인간은 타락과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무관한 자아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숭배 혹은 이기적인 자기 우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Calvin은 Augustine과 마찬가지로 “자만이 인간의 죄의 뿌리”임을 동의하고 있으며,<sup>70)</sup> 그에 따라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진 자기 존중은 건강한 자기 사랑보다는 자만에 가까움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아를 극심히 비하하는 것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병적인 자기 정죄의 태도는 교정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부여하신 자기 돌봄의 자질과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요 또한 고침 받아야 할 연약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그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그 단계에 너무나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종종 그 자신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며 심지어 그 자신을 미

67) Calvin, *Institutes*, III. 9. 1, 2, Wendel, *Calvin*, 302에서 재인용.

68) Calvin, *Institutes*, II. 2. 1.

69) Wendel, *Calvin*, 302.

70) Hoekema, *God's Image*, 182.

위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들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한다. 범죄학자들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과 사회를 증오하며, 그들의 이러한 증오심을 폭력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현상은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회 상담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1)</sup>

흥미롭게도 Hoekema를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이런 열등감과 자기 혐오의 “부정적 자아상[을] 마치 회개에 이르는 필요 조건”으로 보고, “자만한 형태의 자아상 보다는 더 건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sup>72)</sup> 자만과 부정적 자아상을 대비하여 볼 때, Hoekema는 후자를 좀 덜 심각한 죄로 본다. 그의 진단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죄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죄와 연약함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하면 Calvin의 연약의 개념이 훨씬 정교한지도 모른다. Calvin은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말하며, 이것을 죄와 구별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면들을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보기 보다는 연약함의 개념으로 본다. 그것은 죄의 개념이라기보다, 오히려 질병과 연약함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겪으신 고통과 슬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sup>73)</sup>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연약함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지는 자신의 비참한 자아상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영광스러운 자아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적인 자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71) Hoekema, *God's Image*, 183.

72) Hoekema, *God's Image*, 184.

73) Wendel, *Calvin*, 258.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일 뿐, 그런 부정적인 상태의 자아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서는 안된다. 자만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 졌다면, 그 믿음 가운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긍정적 자아상의 무궁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곧 “구속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건전하고도 유익한 결과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sup>74)</sup>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마땅히 가져야만 한다.”<sup>75)</sup> 그것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런 개인의 긍정적 자아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지, 아니면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긍정적 자아상을 그 자체로 목적을 삼는다면 이웃을 향한 사명을 잊기 쉽고, 그 자체를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자신을 귀히 여기고 돌보는 일을 자칫 하찮게 여기기 쉽기 때문이다.

어쨌든 Calvin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나 죄에 억눌려 위축되거나 부정적으로 살기 원하지 않는다.<sup>76)</sup> 비록 고난과 어려움, 혹은 좌절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선한 권리”이다. 이 땅의 “신실한 자들은 항상 현재의 생활을 경멸하는데 자신이 익숙해져야 하지만, 결코 현재의 생활을 증오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sup>77)</sup>

그런 의미에서 Calvin은 결코 이원론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74) Hoekema, *God's Image*, 186-187.

75) Hoekema, *God's Image*, 191-192.

76) Wendel 역시 내세의 생활과 비교하는 Calvin의 이 세상에 대한 경멸을 언급하지만, Calvin의 의도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난과 시련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한다. Wendel, *Calvin*, 295-296, 300.

77) Calvin, *Institutes*, III. 9. 3, Wendel, *Calvin*, 303에서 재인용.

은총이 함께 있는 한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선물이다. Calvin이 비록 미래의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지만,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미래와의 연속선상에서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살기를 요청한다.

### 3. 하나님 형상의 회복

#### 1) 성정이 같았던 인간 칼빈

흔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감정과 친하지 않다. 그들은 성공적이면서 매우 합리적이지만, 그들은 감정이나 감성과 거리가 멀다. 이것은 전형적인 강박증의 특징이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자로서의 Calvin은 자칫 이런 강박적인 인물로 비치기 쉽다. 하지만 Calvin 자신의 저술들을 들여다보면, 그는 여전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며, 그는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삶을 느끼며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Calvin은 자신의 저술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이 유추하는 감정들을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성경을 주석하면서 더욱 풍부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4:15절의 주석에서, Calvin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과 함께 그 영혼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인간과 동일했다고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역시 인간과 같았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았듯이, 정열과 공포, 두려움과 슬픔 등의 감정에 이끌리셨다”는 것이다.<sup>78)</sup> 우리의 대체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그가 “외적인 빈곤이나 재난뿐만 아니라 공포, 슬픔, 죽음의 두려움과 그와 같은 내면적인 감정들을” 직접 경험하셔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sup>79)</sup>

---

78) Wendel, *Calvin*, 258.

79) Wendel, *Calvin*, 258.

때로 잘못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은 Calvin을 냉혈적 법률가요 엄세적인 비평자로 생각하지만, 그는 한 인간으로서 풍성한 감정의 언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며 이끌리셨던 정열과 공포, 그리스도를 사로잡은 두려움과 슬픔의 힘을 공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물론 Calvin을 처음에 제네바에 머물게 했던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Calvin 자신이 “추구하던 은거와 학문의 평온함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는” 파렐의 저주와 그에 따른 공포심이었다.<sup>80)</sup> 물론 자연스럽게도 Calvin은 Martin Bucer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파렐의 급한 성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sup>81)</sup> 그 외에도 Calvin이 1538년 5월에 파렐과 더불어 제네바에서 추방되었을 때 Calvin은 낙담하였고, 또한 “불안에 사로잡혔다.”<sup>82)</sup> 그리고 그는 또한 제네바에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해방된 그 책무로 다시 돌아갈까 봐 무엇보다 두렵다”고 말하였다.<sup>83)</sup>

Calvin이 가장 존경받았던 스트라스부르크 사역에서, 그는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Bucer가 함께 있을 때 그는 “안정감을 느꼈”고,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느낀 슬픔은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켰”다.<sup>84)</sup> 부처의 영향으로 결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희망 사항은 소박하게도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다.<sup>85)</sup>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깊은 슬픔 가운데서 “아내의 죽음이...쓰라리도록 고통스럽지만, 아직 할 수 있는 한 슬픔을 억제하고 있”었

80) Calvin, 디도서 주석 걸어, William. J. Bousma, John Calvin, 이양호 · 박종숙 공역, 『Calvin』, (서울: 나단출판사, 1991), 47에서 재인용.

81) 이후 파렐이 69세의 나이에 훨씬 어린 여성과 결혼했을 때도 Calvin은 분개했다고 한다. Bousma, *Calvin*, 47.

82) Bousma, *Calvin*, 49.

83) Calvin 전집 X, 221, Bousma, *Calvin*, 50에서 재인용.

84) Calvin전집, X IV, 121-122, Bousma, *Calvin*, 52에서 재인용.

85) Calvin전집, X, 348, Bousma, *Calvin*, 53에서 재인용.

다. 그가 말하는 자신의 슬픔은 “결코 보통의 슬픔이” 아니었고, 죽은 아내가 얼마나 “충실한 조력자”였는지 진실하게 비레에게 고백하였다.<sup>86)</sup>

Calvin은 스스로의 슬픔을 참고 삼키면서, 또한 그 슬픔의 경험으로 다른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목회자였다. 그로부터 칠 년이 지난 후, Calvin은 아내를 잃고 상실의 고통을 당하는 다른 한 사람을 진실한 공감 가운데 위로하였다. 그는 아내를 잃었던 자신의 슬픔을 기억하였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던가를 인상깊게 기록하고 있다.

Calvin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이해의 사람이었다. 그는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경험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한 목회자였다. 그는 차갑고 냉철한 체계적인 신학자였지만, 그의 가슴은 한 영혼을 향한 공호와 사랑으로 가득해 있었다. 그는 감정이 거세된 강박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깊이를 감정의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이해했던 솔직하고 균형 잡힌,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다만, 그의 확신이나 가르침과 같이 그의 감정은 많은 부분, 지성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느꼈고, 그에 대해 생각했으며, 그 감정들을 참거나 조절하고 있었다.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Calvin은 “그의 모든 감정들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말한다.<sup>87)</sup> 이 점에서 Calvin은 인간의 감정이 이성의 통제 아래 보존되어야 한다는 스콜라 철학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Calvin은 그들처럼 감정을 저급하게 보거나 육체적 금욕을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고상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그들의 인간관과는 차별을 보이고 있다.

## 2) 성령의 사람 칼빈

인간의 타락을 단순한 은총의 상실이라 생각하였던 Thomas Aquinas와 그의 추종자들과 달리, Calvin은 인간을 부패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하나

86) Calvin전집, X IV, 212-231. Bousma, *Calvin*, 54에서 재인용.

87) Hoekema, *God's Image*, 77.



님 형상의 회복도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 가능하며,<sup>88)</sup> “이성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철학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sup>89)</sup> 왜냐하면 “‘기독교 철학’은 이성이 성령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굴복하고 물러나야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힘 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다.<sup>90)</sup>

물론 Calvin은 이성의 탁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는 이성애에 매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성의 만능과 이성의 통치에 반대하고, 오히려 성령의 통치와 인격적 지배를 전적으로 존중하였다. 세속적인 학자나 예술가들의 공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탁월함의 유일한 원천을 성령으로 받아 들였던 Calvin은 오히려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탁월한 이성의 산물들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그 은총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Calvin은 경계한다.<sup>91)</sup>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은 그에게 학문에 관한 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그에게 성령은 자유의 영이었다.

그가 인간의 이성 활동에 대한 인문주의적 안목과 너그러운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학문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는 심미안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자신이 누렸던 자유에서 비롯된다. 성령 안에서 Calvin은 비로소 흑백론자나 강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미적 안목 즉 깊은 심미안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어찌면 Calvin은 스콜라 철학이나 그를 따른다고 하는 후예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너그러운 관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학문의 영역이 신학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영역의 탁월성을 비기독교적

88) Hoekema, *God's Image*, 84.

89) Wendel, *Calvin*, 297-298.

90) Calvin, *Institutes*, III. 7. 1, Wendel, *Calvin*, 298에서 재인용.

91) Calvin, *Institutes*, II. 2. 15, Hoekema, *God's Image*, 315에서 재인용.

성격 그대로 감상할 줄 알았다. 그것은 성령과 신학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였다. 비록 비기독교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며, 그 원천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Calvin은 구태여 다른 학문들의 방향을 틀어 기독교적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철학을 신학의 시녀라 주장했던 스콜라주의적 시도나, 비기독교적 학문인 심리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구태여 심리학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Calvin에 비하면 오히려 짐착 내지 강박적이다. 그들에게는 Calvin과 같은 성령 안에서의 너그러운 관용 혹은 넉넉한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 관용의 결여는 곧 자신감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의 대적들이나 후예들이 기독교 신학 자체에 대한 Calvin 만큼의 자신감을 갖지 못했음을 뜻하며, 그를 추종한다 하면서 오히려 Calvin을 단순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일 Calvin이 21세기에 살았다면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처럼 과연 자신의 편에 따라 자연과학은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심리학을 비롯한 인문과학 내지 사회과학을 근본적으로 거부했을까? 이미 세속적인 학문과 예술의 저자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믿고 있었던 그는 더 이상 그런 인문과학들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의 창시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비신자들인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반짝이는 진리의 빛”과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들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이다.<sup>92)</sup>

Calvin의 이같은 자신감은 그의 설득과 포용의 태도에서 표면화된다. 기독교 강요나 주석에서 그가 추구하는 깊은 통찰력과 박식함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설득을 지향하고 있다.”<sup>93)</sup> 그는 사람의 영혼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유연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많은 수사학적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sup>94)</sup>

92) Hoekema, *God's Image*, 315.

93) Bousma, *Calvin*, 288.

94) Quirinus Breen, “John Calvin and Rhetorical Tradition,” *Church History*, XXVI(1957), 3-21, Bousma, *Calvin*, 288에서 재인용.

인문주의적 해석학에 익숙하였던 Calvin은 본문의 증명과 설득을 위해 씨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내면적 경험을 통찰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시편 88:5과 같은 구절의 주석에서, 저자가 자신을 “죽은 자 중에 던져진바 되”어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시고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단순히 불신앙의 표현으로 정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이 때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 저자의 왜곡된 관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자유로운 감정의 상상력으로 용납하고 있었다. 그는 심리학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이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타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깊이 있게 적용한 신학자였다.

Calvin은 지식과 설득과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내면적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타고난 목회자였다. 그는 남을 설득하려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일반 은총의 아름다움과 인간 존재의 내면적 경험에 공감 가운데 설득당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의사소통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다. 그의 지식은 통합적이었고, 신학적 자신감 위에 그가 사용하지 못할 학문이나 기술은 없었다.

특히 오늘날의 기독교적 상담의 일부 경향에 비추어 Calvin을 생각할 때,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죄의 고백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그가 생각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sup>95)</sup> Calvin은 성경에서 죄의 고해나 고백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형태가 있을 수 없음을 강변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95) Jay Adams는 모든 비참과 고통이 본인의 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아담의 원죄가 있다고 바로 가르친다. 다만 그는 “그릇된 죄책감이란 있을 수 없”고, “죄책감(guilt)이 곧 죄책감에 대한 의의 근원”이라 지적하며, 그 뒤에는 해결되어야 할 양심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 상담자가 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말대로 모든 고통과 비참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찾아 “말 그대로 죄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에서 권고의 방식이 그가 제시한 “사탄의 길 혹은 하나님의 길”의 선택만 있다거나, 광범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사탄의 대리자들”로 보는 그의 견해는 확실히 세속의 학문을 생각하는 Calvin의 견해와는 다르다. Jay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1-10, 139-159.

렇게 엄하게 금하신 양심을 새로운 결박으로 묶어 노예 삼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한다.<sup>96)</sup> 누구에게든 “죄를 완전히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첫째,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파괴하고, 정죄하고, 좌절시키고, 황폐와 절망으로 던져버릴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그들을 위선자들로 만들고, 하나님과 그들 자신에 대해 무지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sup>97)</sup>

물론, 야고보서 5:16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간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확인함으로써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성을 노출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유도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권고와 위로”(mutual counsel and consolation) 사건이어야 한다.<sup>98)</sup> Calvin의 통찰력으로 볼 때,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할 상담에서조차 권위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죄의 고백을 위로의 도구로 외면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령 안에서 Calvin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참된 위로를 통해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풀어주었던 참된 해방과 치유의 개혁자였다.<sup>99)</sup>

96) Calvin, *Institutes*, III. 4. 13.

97) Calvin, *Institutes*, III. 4. 18.

98) Calvin, *Institutes*, III. 4. 12

99) 아담스의 이론은 “인간의 죄의 본성만을 상담의 관심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외부적인” 면을 무시하고, 또한 “일반 심리학...에 대한 문호를 완전히 닫아 버”렸다. 결국 상담을 위해 남은 성경만을 사용하는 “지시적 강제성은 내담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빼앗아버리고 복종을 강요”하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심리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매우 빈약”하다. 전요섭, “제이 아담스”, 『가정과 상담』 108호 (2007): 38.

### III. 닫는 글

Calvin이 비록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선언하였으나, 그의 인간관은 결코 완고한 이분법 혹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비록 인간의 불순종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게 되었고, 끔찍하게 오염된 기형만 남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 무용지물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며, 지금도 인간은 빛나는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 사회와 역사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 업적과 유산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이라거나 사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Calvin의 안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타락한 죄인의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색은 흰 색과 검정색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아름다운 무지개의 색과, 거기에서 비롯된 수많은 색들이 존재한다. Calvin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존중하였다.

물론 탁월한 이성에 대한 그의 관점은 자칫 그의 타락에 관한 교리와 상충되게 보인다. Calvin은 이 문제를 저작자 하나님, 혹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님에 의해 해결한다. 비록 세속적인 철학, 문학, 혹은 과학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이다. 특히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 형상의 그 큰 유산 가운데 하나이며, Calvin은 일반적 은총을 통해 인간 역사와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한다.

어쩌면 Calvin보다 더 Calvin주의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의 이치를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살아남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이성의 탁월함을 너무 쉽게 사단적인 것으로 정죄한다. 그리고, 죄를 말하지 않는 학문을 사단의 사자들이라 정죄한다. 오히려 Calvin 자신은 이런 Calvin주의자들과 구별되었고, 그 스스로가 슬픔을 슬픔으로, 불안을 불안으로 여과 없이 경험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신학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시대의 학문과 문화를 마음껏 호흡하였다.

신학자로서 Calvin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세속의 여러 학문에

능한 학자였다. 개혁자로서 Calvin은 개인의 양심을 억누르는 모든 신학적 구체제(ancient regime)의 억압의 사슬을 깨뜨렸다. 설교자로서 Calvin은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 열정과 설득으로 말씀을 풀어냈다. 목회자로서 Calvin은 공홀로 사람들을 치료한 위로자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과 일반 학문의 긴밀성을 누구보다 유익적으로 인식했던 현대 개혁주의 신학 방법론의 선구자였다.

#### 【 참고문헌 】

- 송인규. “일반은총: 개혁과 신학 내에서의 상이한 견해들(1)”.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정론」. 제25권 1호(2007).
- 전요섭. “제이 아담스”. 『가정과 상담』. 108호(2007).
- Adams, Jay.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 Bousma, William. J. *John Calvin*. 이양호 · 박종숙 공역. 『Calvin』. 서울: 나단출판사, 1991.
- Calvin,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Campbell, Iain D. *The Doctrine of Sin*. Ross-shire. Great Britain: Mentor, 1999.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유희준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McKim, Donald. “Some Aspects of Death and Dying in Puritanism,” In *Calvini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Vol. X. ed. Robert V. Schnucker.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1988.
- Wendel, Francois. Calvin. 김재성 역. 『Calvin: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Abstract 】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Human:  
Corrupted Will and Distinguished Reason

Jae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Some people misread John Calvin, a reformer and theologian, as pessimistic just because he regards human as totally depraved. Calvin declares about total corruption of human after the Fall, but he is not always pessimistic toward human cultures or academic accomplishments. People are different from beasts because God continues to give them distinguished reason and wisdom. Remnants of God's image even after the Fall still dignify human existence. Calvin willingl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cademic properties of his time outside theology such as philosophy, mathematics and law: he actively engages them for his theological works. He also cherishes all kinds of people because of inherent images of God within. He also keeps a consistent and holistic perspective of Christian life on earth with balanced hope of the future.

**Key words:** John Calvin, image of God, will, reason, common grace

